범어사 사찰음식체험관·연구소 공식 개소

교육 · 연구 복합 공간 구성
관광 연계 지역콘텐츠 확장
'범어사표 사찰음식' 정립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6월 1일 사찰음식의 정체성과 현대적 가치를 구현할 '사찰음식연구소'와 '사찰음식체험관'을 공식 개소했다.

범어사는 6월 10일 선문화교육관 내 체험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립 취지와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체계, 중장기 계획 등을 소개했다.

정오 스님은 "사찰음식은 수행자의 삶 자체로, 자연과의 조화와 생명존중, 절제와 정성의 철학이 담긴 정신적 실천"이라며 "이 공간이 단순한 조리교육장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치유와 성찰을 제공하는 생명문화의 장이자, 한국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찰음식체험관은 선문화교육관 2층 기존 다실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50평 규모로 강사석 1곳과 대형 실습 테이블 2기(총 12인 수용), 개별 조리대와 수납장, 싱크대, 식기와 조리도구 일체가 마련되어 있다. 조리 시연과 실습, 이론 수업이 연동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향후 별도 건물 신축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은 매주 4일간 운영되며 월·화요일에는 사찰음식반, 수·목요일에는 한식디저트반이 개설됐다.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회당 12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총 1년 과정 이수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현재 1기 초급 과정은 모집 즉시 마감되었으며, 수강생들은 수업마다 범어사에서 수확한 식재료로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사찰음식연구소장은 주지 정오 스님이 맡고, 부소장에는 범어사 복지국장 서연 스님이 임명됐다. 실무 총괄을 맡은 해봄 기획팀장(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본교에서 식물성 요리 과정을 수료한 유영리 수석연구원, 박상우 책임연구원, 장도석 총괄자문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 동국대 사찰음식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이다.

사찰음식체험관은 교육 기능을 넘어, 관광·문화·국제교류를 결합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 프로그램은 △'비움의 맛! 채움의 기운!' 외국인 대상 사찰음식 체험 △부산시·부산관광공사 공동기획 '부산도심관광 및 금정산 범어사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다. 금정산 둘레길 탐방, 명상, 전통등 만들기와 연계한 사찰음식 체험형 패키지 상품도 개발 중이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사찰음식연구소 관계자들이 6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6월 18일 열리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만찬도 이곳 체험관에서 열린다. 약 200명의 국내외 스님과 관계자를 위한 오찬 메뉴는 연구소 연구진과 초급 수강생들이 직접 준비할 예정이며, 모든 식재료는 범어사 인근에서 자란 채소와 약초를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찰음식을 국제행사에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첫 사례다.

범어사는 스님들이 실제 수행 중 섭취해 온 전통 식단을 복원하고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과즙을 채수로 활용한 사과냉면, 두부·버섯을 재료로 한 사찰식 만두, 송화가루 음료가 시연됐다. 이어 초급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비빔국수와 물국수, 미나리 김치가 함께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해봄 책임연구원은 "사찰음식을 '잘 만드는 법'보다 '누구나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스님들의 전통 식단을 바탕으로 범어사만의 사찰음식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영리 수석연구원은 "범어사에는 오랫동안 구전된 전통 음식이 많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스님들이 드시던 음식을 기록하고 레시피로 만들어 범어사 고유의 음식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연구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향후 계획으로 선문화교육관 앞 부지에 사찰음식체험관 전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체험관은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확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독립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독립 공간은 '불교 수행·생명문화·지역사회 실천'을 아우르는 전방위 사찰음식 플랫폼으로 자리할 계획이다.

정오 스님은 "사찰음식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는 수행의 연장선"이라며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삶에 치유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찰음식이 살아있는 불교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51-508-0102

쿠무다 로터스봉사단, 어르신 만발공양

6월 5일 300명에 건강식
지역 사회 나눔 실천 행보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 부설 로터스봉사단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로터스봉사단은 6월 5일 사무실 앞 그린레일웨이 솔그늘숲길에서 '송정동 어르신 무료 점심공양 초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로터스봉사단이 주최하고 대운사와 명경문화재단이 후원했으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정동 일대 어르신 300여 명이 초청돼 그늘막 아래 마련된 야외 테이블에서 점심 공양이 진행됐다. 식사는 로터스봉사단 회원들이 3일간 직접 조리한 건강식으로 제공됐으며 생수와 떡, 세면도구 등이 함께 전달됐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비롯해 쿠무다 이사진과 봉사단 회원들이 행사 준비와 운영에 참여했으며,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손성애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송정동 부녀회 회원 등도 자원봉사자로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주석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자비의 실천이 이웃에게 온기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구청장은 "항상 지역을 위해 애써주시는 주석 스님과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지역복지의 의미를 다시 느꼈다. 구청도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로터스봉사단은 2023년 12월 19일 창단해 부산 송정동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창단을 기념해 김치 1500kg(500상자)을 지역에 전달하며 첫 보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매월 두 차례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점심공양은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비정기 무료급식도 병행해 나눔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봉행

6월 6일 독성각 앞 잔디마당
순국선열 추모와 불법 홍포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경내 일원에서 '제35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와 제13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봉행했다.〈사진〉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홍법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매년 주최하는 호국영령 천도의식으로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지를 이어 봉행하고 있다.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도 함께 봉행해 불교홍포 및 교육 사업에 앞장선 창건주의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통도사 만초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채프먼 미 해군 목사와 미 해군 병사, 스튜어트 레이필드 클럼버스 주립대 총장과 학생들, 하도명화 보살 가족, 강용창 부산경찰불자회장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심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호국바라밀재는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적과 인종을 넘어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자리"라고 의미를 밝혔다.

채프먼 목사는 추모기도에서 "이 아름다운 장소에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조국을 지켜낸 영혼들이 자비롭게 안식을 얻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스튜어트 레이필드 클럼버스 주립대 총장은 "콜롬버스 주립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이러한 유산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매일 느낀다. 특히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희생은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이어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에 이어 오후에는 청소년에게 호국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제13회 호국의 숨결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서예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유치부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석해 호국의 날 의미를 되새겼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6월 16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상담 : 1688-9099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